

아파트헤이트 시기의 대항기억과 재생산된 기록의 역사 담론

전시 『Rise and Fall of Apartheid :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를 중심으로

The Counter-memory and a Historical Discourse of Reproduced Records in
the Apartheid Period : Focusing on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

이혜린(Lee, Hye-Rin)*

1. 머리말
2. 아파트헤이트와 전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
3. 기록의 재생산과 역사적 담론 형성
4. 대항기억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진기록의 가치
5. 맺음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leehr22@mju.ac.kr).

■ 투고일: 2022년 09월 22일 ■ 최초심사일: 2022년 10월 02일 ■ 최종확정일: 2022년 10월 21일.

■ 기록학연구 74, 45-78, 2022, <https://doi.org/10.20923/kjas.2022.74.045>

〈초록〉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백인과 인도인, 혼혈인, 흑인 등 인종을 계급화하고, 계층에 따라 거주지와 개인 재산 소유, 경제적 활동 등 모든 사회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백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탄압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들은 무차별한 폭력을 일삼는 정부에 저항하였고, 이들을 지탄하는 여론은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중 하나는 폭력 현장을 자세히 기록한 사진 이미지들이다. 민중 탄압을 포착했던 외신 기자들은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사진작가들은 개인의 차원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데 몰두했다. 이들이 현실을 알리려는 의지가 없었고 실제로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인종 차별로 기인한 사태의 참혹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여러 단면을 포착해 그와 관련한 여러 기록을 전시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를 주목하고, 사진에서 묘사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된 인종 차별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전시는 아파르트헤이트가 시작된 1948년부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으려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1995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전시에 출품된 수많은 사진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피터 마구베네(Peter Magubane), 이안 베리(Ian Berry), 데이비드 골드블라트(David Goldblatt), 산투 모포켄(Santu Mofokeng) 등이 촬영한 것으로, 다양한 아카이브를 비롯한 박물관, 미술관, 언론 매체의 소장품이다. 전시에 출품된 사진들은 일차적으로는 사진작가들의 작업 결과물이다. 사진 작품인 동시에 1960년대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를 증명하는 매체이지만 역사학이나 기록학적인 관점보다는 사진사와 미술사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전시된 사진들은 기록물로서의 특성이 있고, 그 안에 담긴 맥락 정보는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된 영역에서 확대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당대를 살펴보고, 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시에

서 선보인 사진 작품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과 사람을 증명하고 서술한다. 이런 점은 보통 사람들의 기억, 개인의 기록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과 사건을 역사적 공백으로 편입시키고, 여러 매체로 재생산되어 기록 생산의 맥락을 강화하고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아파르트헤이트, 사진기록, 대항지역, 아프리카픽스, 소웨토 항쟁, 샘 은지마

〈Abstract〉

South Africa implemented apartheid from 1948 to 1994. The main content of this policy was to classify races such as whites, Indians, mixed-race people, and blacks, and to limit all social activities, including residence, personal property ownership, and economic activities, depending on the class. All races except white people were discriminated against and suppressed for having different skin colors. South African citizens resisted the government's indiscriminate violence, and public opinion criticizing them expanded beyond the local community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One of the things that made this possible was photographs detailing the scene of the violence. Foreign journalists who captured popular oppression as well as photographers from South Africa were immersed in recording the lives of those who were marginalized and suffered on an individual level. If they had not been willing to inform the reality and did not actually record it as a photo, many people would not have known the horrors of the situation caused by racial discrimination.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 of Everyday Life*, which captures various aspects of apartheid and displays related records, and examines the aspects of racism committed in South Africa described in the photo. The exhibition covers the period from

1948 when apartheid began until 1995, when Nelson Mandela was elected president an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as launched to correct the wrong view of history. Many of the photos on display were taken by Peter Magubane, Ian Berry, David Goldblatt, and Santu Mofokeng, a collection of museums, art galleries and media, including various archives. The photographs on display are primarily the work of photographers. It is both a photographic work and a media that proves South Africa's past since the 1960s, but it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field of photography and art history rather than from a historical or archival point of view. However, the photos have characteristics as records, and the contextu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m is characterized by being able to look back on history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xpand in the previously studied area to examine the time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interpret it anew. The photographs presented in the exhibition prove and describe events and people that are not included in South Africa's official records.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incorporates socially marginalized people and events into historical gaps through ordinary people's memories and personal records, and is reproduced in various media to strengthen and spread the context of record production.

Keywords : Apartheid, Photographic records, Counter-Memory, Afrapix, Soweto Uprising, Sam Nzima

1. 머리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48년부터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했다. 극악한 인종 차별 정책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40년 이상 이어졌고,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백인 정권은 인종을 크게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

누었다. 그중에서 비백인(非白人)은 인도인과 혼혈인, 흑인 등으로 서열화해 사회적 행동반경과 범위를 통제했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일자리에 제한을 두었고, 다른 인종과 혼인을 금지하는 등의 인권 유린 정책을 펼쳤다. 아파르트헤이트는 국가 차원의 제도였기에 무차별한 폭력조차 공적인 의도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둔갑시켰다. 수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당했지만, 인종 차별이 당연시된 역사는 이들의 삶을 기억하거나 애도하지 않았다. 이처럼 권력을 가진 입장에서 기술한 공적 기록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사실의 많은 부분을 누락하고, 때로는 소수의 역사를 전부인 것으로 둔갑시킨다. 이런 특징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나타난다.

대중 매체와 소설, 여행기, 영화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박물관과 도서관, 아카이브, 미술관의 소장품조차 흑인을 문명과 동떨어지고 부족 문화를 지향하는 원시적 인종으로 묘사했다. 이런 기록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갖게 하고, 이를 사실로 고착화하는 데 일조한다. 그런 점에서 권력자에 의해 기록되고 평가되어 보존된 기록들은 승자의 편에서 존재해 왔다. 이는 권력의 비민주성과 공권력이 파행에 의해 사회적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록이 누락(이경래·이광석, 2017, 47)되는 사례를 끊임없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공적 기록의 공백은 오히려 역사를 기록하려는 시민들의 기록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기록은 공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멸하거나 은폐된 과거를 폭로하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시대를 공감하고 연대하는 차원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대항기억(counter-memory)으로서 사회 현상과 사건을 증언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과거를 드러내고 알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항기억은 사회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관계망에 깊이 의존한 공동체의 공감과 연대의 기록으로서, 궁극적으로 고유의 문화와 가치, 더욱더 중요하게는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윤은하, 2012, 25)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정책에 학생과 종교인, 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이 저항했다. 그중에서도 이 시기에 활동한 사진작가들은 사회적 현상과 폭력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통 사람들의 삶을 담아낸 사진기록을 동시대를 기록하는 중요한 매체로 삼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당시 사회 면면을 포착한 기록들로 구성된 전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¹⁾이다.

전시 작품들은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생산된 기록들로, 개인 혹은 공동체를 이룬 단체가 체계적이고 전투적으로 사회 현상을 포착한 것이다. 특히 전시된 사진 기록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거나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사진작가들, 예를 들어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피터 마구베네(Peter Magubane), 이안 베리(Ian Berry), 데이비드 골드블라트(David Goldblatt), 산투 모포켅(Santu Mofokeng), 케빈 카터(Kevin Carter), 그렉 마리노비치(Greg Marinovich) 등²⁾ 사진작가나 아프리카픽스

1) 이 전시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미국에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2013년 1월 6일까지 ICP(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에서, 독일에서는 2013년 2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우스테어쿤스트(Haus der Kunst)에서, 이탈리아에서는 2013년 7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PAC(Padiglione d'Arte Contemporanea)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014년 2월 13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아프리카 박물관(Museum Africa)에서 열렸다.

2) 전시에 참여한 주요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Paul Alberts, Jane Alexander, Joe Alferts, Omar Badsha, Roger Ballen, Jodi Bieber, Robert Botha, Margaret Bourke-White, Geoff Bridgett, Andrew Browns, Kevin Carter, Ernest Cole, A.M. Duggan-Cronin, Jillian Edelstein, Christian Gbagbo, David Goldblatt, Bob Gosani, Paul Grendon, Hans Haacke, George Hallett, Gavin Jantjes, Tim Jarvis, Fanie Jason, Ranjith Kally, William Kentridge, Alf Khumalo, Tom Killoran, Lesley Lawson, Chris Ledochowski, Leon Levson, John Liebenberg, Rashid Lombard, Peter Magubane, Greg Marinovich, Peter McKenzie, Gideon Mendel, Sabelo Mlangeni, Santu Mofokeng, Billy Monk, Zwelethu

(Afrapix), 뱅뱅클럽(The bang bang club)과 같은 단체가 생산한 것이다. 이 전시는 사진의 생산 주체가 주로 사진작가였다는 점과 전시 기획자가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으로 주로 사진사와 미술사에서만 담론을 형성해 왔다. 이는 사진이 다룬 주제와 기록 방법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수한 정보보다 사진 '촬영자', 즉 기록 생산자를 중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사진들은 역사 기록물로 평가할 만한 개념적 특성을 갖추고 있고, 비교적 명확한 출처와 그 안에 담긴 자세한 정보 맥락을 담아낸 매체이다. 사진작가의 작업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진들에는 대상과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흑인들이 겪었던 불편한 현실, 그리고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나아가 아파르트헤이트의 참혹함을 알리는 저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공적 기록에 대항해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려는 매체로 기능한다.

2. 아파르트헤이트와 전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

서양의 식민지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물질적인 약탈뿐 아니라 정신적인 황폐화를 가져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된 합법적인 인종 차별정책이다. 아프리카어로 '분리'를 뜻하는 아파르트헤이트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의 식민지

Mthethwa, G.R. Naidoo, Gopal Naransamy, Themba Nkosi, Jerry Ntsipe, Cedric Nunn, Sam Nzima, Ken Oosterbrook, Adrian Piper, Douglas Pithey, Jeeva Rajgopaul, Jo Ractliffe, Catherine Ross, Robyn Ross, Arishad Satter, Jurgen Schadeberg, Wendy Schwegmann, Thabiso Sekgala, Joao Silva, Guy Tillim, Gille de Vlieg, Noel Watson, Eli Weinberg, Paul Weinberg, Dan Weiner, Graeme Williams, Sue Williamson, Gisele Wolfson,

로 존재해왔던 식민 역사의 잔재로,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흑인에 대한 차별정책이 연장(조화성, 1999, 125)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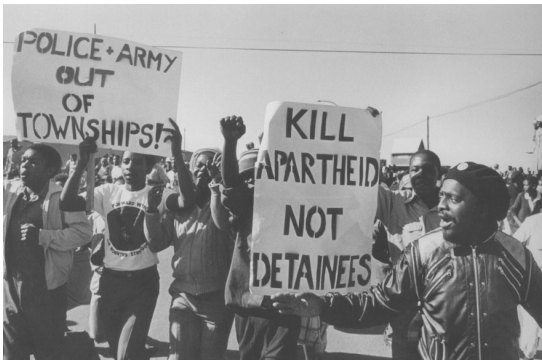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은 1948년 총선거에서 승리한 국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화되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백인과 흑인의 독자적인 발전이었지만, 실상은 백인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백인사회로부터 열등한 인종을 분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백인 인 지배 세력이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의 피지배 세력들을 착취하거나 고통을 지속해서 만들어내는 구조적 틀을 구축했다. 이러한 지배와 착취에 필요한 각종 장치, 즉 법과 제도, 이데올로기 등은 국가권력의 힘으로 동원(김광수, 2018, 4)되었다.

국가에 의해 인종 차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종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많은 법률들이 차례로 통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인종을 크게 백인과 유색인종, 인도인, 흑인으로 분류하였고, 1949년에는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타인종 간의 결혼 금지법(Prohibition of Mixed Marriages Act)’을, 1953년에는 공공장소에서 흑백의 신체접촉을 불허하는 ‘교환금지법(Separate Amenities Act)’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인종에 다른 거주지 제한, 시설 이용 금지, 흑인들의 신분증 휴대를 의무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인종 간의 차별을 조장하는 30여 개의 인종 차별 법률이 제정했다. 이러한 체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장원석, 2017, 119). 그중에서도 가장 간악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집단 이주법(Group Area Act)’이다. 정부는 인종 분리의 목적에 따라 도심지역에 사는 흑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흑인 자치지역인 트란스케이(Transkei)를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인종 간의 차별을 넘어 실질적으로 흑인을 격리하고 분열(이한규, 2002, 257)시키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였다.

흑인들이 겪은 차별은 비단 주거 제한만이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인

종에 따른 계급을 확고히 하였다. 1970년을 기준으로 흑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인구의 70.2%에 해당했지만,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전체 인구의 17.5%에 불과했던 백인이 전체 토지의 83%를 소유했다. 이러한 재산 불균형은 인종 간 소득에서도 드러났다. 1970년을 기준으로 흑인의 연평균 소득은 한 사람당 148달러에 그쳤지만, 백인은 10배가 훨씬 넘는 2,100달러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점은 백인과 흑인이 동일한 노동계급에 해당할 때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백인 노동자가 467달러를 임금으로 받을 때, 흑인 노동자는 27달러(장용규, 2000, 47)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르트헤이트는 흑인의 자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반면, 백인에게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포함해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마련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림 1〉 Paul Weinberg
〈Andries Raditzela's funeral〉 1985.5



〈그림 2〉 Andrzej Sawa
〈Apartheid sign〉 1977



인종을 계층화해 계급사회로 만든 아파르트헤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흑인 스스로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강요받고, 자신들을 백인 문화의 수혜자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즉, 사회 분위기로 인해 이 체제에서 흑

인들은 백인을 전형으로 간주하며 자신들의 존재는 부정하고 왜곡(하상복, 2016, 189)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이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다. 서양의 식민지배 세력은 수 세기에 걸쳐 아프리카의 이미지를 편협하게 묘사했고,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도록 강요(장용규, 2000, 27)했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폭력적으로 악화하였다. 흑인에 대한 정부의 폭력은 빈번해졌고, 무고한 이들이 사망하는 유행사태가 계속되었다. 여러 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들을 비롯해 아프리카 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와 남아프리카 공산당(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SAPA), 아프리카 독립교회(African Independent Churches), 그리고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반(反) 아파르트헤이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활동한 사진작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흑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시민들의 흔적들을 이미지로 보여주었다. 이 사진들은 사회적 폭력을 마주한 사람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아파르트헤이트의 폭력성을 알리는 중요한 매체였다. 이런 사진들을 하나의 전시로 망라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³⁾는 1948년부터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1990년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의 초상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사진의 역할을 탐구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Okwui Enwezor, 2013, 18)(〈그림 3〉).

3) 전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는 2006년에 열린 전시 『Snap Judgments: New Positions in Contemporary African Photography』 이후에 개최되었고, 이 전시 이후에 『Sun in Their Eyes: Photography and the Invention of Africa, 1839~1939』가 열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00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조명한 시리즈를 완성하였다.

〈그림 3〉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



전시의 면면을 언급하기에 앞서, 기획자인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엔위저는 1963년생 나이지리아 출신 큐레이터로, 『도큐멘타 11』(2002), 『제7회 광주비엔날레』(2008), 『파리 트리엔날레』(2012),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2015) 등 굵직한 전시들을 기획하며 대표적인 큐레이터로 주목받았다. 대부분 미국 혹은 유럽인들로 구성되는 주류 미술계에서 오쿠이 엔위저는 ‘비유럽권 출신’이란 타이틀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에 대한 인식 또한 인종 차별의 잔재랄 수 있다. 여전히 아프리카, 혹은 흑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엔위저는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해체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비서구권의 문화와 미술적 실천들에 주목해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유럽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전시를 기획했고, 아프리카의 식민지 해방의 과거와 현재가 미술에서 구현되었는지(정은진, 2018, 59)에 주목해왔다.

전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는 아파르트헤이트 동안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했다. 역사의 면면을 드러내는 신문과 잡지, 단행본, 문서,

영상, 기록물, 그리고 70명이 넘는 작가가 찍은 사진 500여 장으로 구성된 아카이브 전시로, 전시품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 호주, 독일 뉴질랜드 등 세계 곳곳에 위치한 아카이브와 박물관, 갤러리, 그리고 신문 및 방송사의 소장품⁴⁾이다. 또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인종 차별이나 아파르트헤이트를 주제로 작업한 현대미술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였다.

전시에서는 기간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벌어진 사건과 사회 분위기를 크게 '1948~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5'로 나누었고, 해당 시기에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인 사건들을 함께 설명했다. 다음 표는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전시의 대분류 및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주요 사건

연도	역사적 사건	비고
1948~1959	불복종 운동	
	자유현장과 위증재판	
	강제이주	
	블랙 새시(The black sash)	
	잡지 『Drum』	
1960~1969	아파르트헤이트 상징물	
	어니스트 콜 (Ernest Cole)과 『House of bondage』	
	조지 할렛(George Hallett)과 6구역	
	빌리 몽크(Billy Monk)와 케이프타운의 밤 문화	

4) 전시된 기록들의 주요 소장처는 Museum of Africa, South African National Film Archives, UWC-Robben Island Museum Myibuye Archiv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s of South Africa, University of Cape Town Libraries, Adrian Piper Research Archive Foundation Berlin, Apartheid Museum, BHP Billiton Collection, Marian Goodman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Afrian Film Production, New Zealand Film Archive 등이다.

연도	역사적 사건	비고
1970~1979	소웨토 항쟁	
	흑인 의식	
	대중 시위의 모습	
	아파트헤이트에 대응한 예술가들	
1980~1989	아프라픽스(Afrapix)	
	심화된 투쟁	
1990~1995	내전과 폭력의 확대	
	뱅뱅클럽(The bang bang club)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와 시민들의 정체성을 잘 담아낸 이 전시는, 공적으로 다루거나 기록되지 않은, 소외된 이들의 모습에 접근한다. 이미지들은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 작가들이 촬영한 것이지만,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촬영자 미상의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 전시에서 언급하는 주요 사건과 그와 관련한 사진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948년부터 1959년까지는, 1952년 벌어진 저항운동을 비롯해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에 요구하는 여러 권리를 정리한 자유헌장(Freedom Charter) 채택, 위증재판, 강제이주, 반인종분리 여성단체인 블랙 새시(Black Sash)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한다. 자유헌장은 소수자의 지배 반대와 모든 민족의 평등, 부와 토지의 고른 분배, 노동권, 생활권의 보장, 교육과 의료, 사회 복지의 보장을 요구한 문서로, 이는 수십 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자유 투쟁에서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손은희, 2005, 22). <그림 4>는 바로 자유헌장 채택을 공표한 날의 기록으로, 엘리 와인버그(Eli Weinberg, 1908~1981)가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많은 사람이 자유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Eli Weinberg
〈Freedom Volunteers〉 1955



이 시기의 또 다른 사건으로 위증재판, 혹은 반역 재판이라 불린 사건도 조명한다. 아파르트헤이트 제도에서 흑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통행권을 소지해야 이동할 수 있었다. 이는 흑인에게만 강요된 악법이었다. 이에 저항하던 수많은 흑인들은 한 곳에 모여 자신의 통행권을 소각하는 사건을 벌였다. 이처럼 당시의 흑인들은 지속적인 인종 탄압과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정부는 이들을 체포해 공권력을 과시했다. 이 시기에 넬슨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 1918~2013년) 역시 1956년 동료들과 함께 기소되어 1961년까지 재판을 받았다. 따라서 1948년부터 1959년까지는 제도화된 인종 차별의 굴레에서 여러 번의 억압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평등한 사회와 민주주의를 꿈꾸게 된 시기였다.

다음으로 1960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에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무고한 시민들, 그중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희생되었다.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대중들의 분노와 공포를 잘 나타

내면서도 이를 애도하는 작가들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이때 촬영한 사진들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투쟁 사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샤프빌(Sharpeville) 학살에서 찍은 것들이다.

〈그림 5〉 Peter Magubane
〈Sharpeville Shooting〉 1960.3.21



〈그림 6〉 Ian Berry
〈Sharpeville Massacre〉 1960.3.21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피터 마구바네(Peter Magubane, 1932~)와 이안 베리(Ian Berry, 1934~)가 1960년에 벌어진 샤프빌 학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다. 샤프빌 학살은 경찰들이 인종 차별과 통행법에 항의하던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시민 69명이 사망했고, 400명 이상이 다쳤다. 두 작가의 사진에는 무고한 이들의 사망한 학살 현장의 참혹함뿐 아니라, 거리에 사람들이 숨진 채 쓰러져 있음에도 신경 쓰거나 외면하고 있는 백인 경찰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는 이들을 더욱 결속하게 했다. 이 사건으로 케이프타운에서는 5만 명이 집결해 아파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에 들어갔다(V. P. Franklin, 2003, 210). 샤프빌에서 참사는 이를 기록한 사진을 통해 언론에 알려졌고, 이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시위는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어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1929~1968)이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림 7〉 Ceceil Sols
〈ANC election billboard〉 1994.2.1



〈그림 8〉 Arishad Satter
〈ANC supporters in Hillbrow〉 1994.5.2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내전을 취재하던 사진작가이자 기자였던 4명⁵⁾으로 구성되었던 뱅뱅클럽(The bang bang club)이 찍은 사진들과 아파르트헤이트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도록 이끈 넬슨 만델라의 사진 등,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벌어진 인종 차별을 역사와 기억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결락되었지만, 사진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남긴 개인 기록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새롭게 역사를 주목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3. 기록의 재생산과 역사적 담론 형성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동안 수많은 폭력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중에

5) 뱅뱅클럽의 구성원은 케빈 카터(Kevin Carter, 1960~1994), 그렉 마리노비치(Greg Marinovich, 1962~), 켄 오스터브룩 (Ken Oosterbroek, 1962~1994), 주앙 시우바(João Silva, 1966~)이다.

서 소웨토 항쟁은 가장 잔인하게 기억되는 사건 중 하나이다. 1976년 6월 16일 벌어진 이 사건은 학교에서 아프리칸즈어(Afrikaans)로 교육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이를 저지하고자 시위를 벌인 것이 발단이 되었다. 아프리칸즈어는 17세기 네덜란드계 백인이 이주하면서 전파한 언어로, 흑인들에게는 차별과 억압을 상징한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교사들은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 ‘DO NOT WANT AFRIKAANS’ 라는 팻말을 들고 아프리칸즈어로 교육받고 싶지 않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의 표정에서 짐작할 수 있듯 매우 평화적인 시위였다.

<그림 9> <Soweto riots>



출처 : Baileys African History Archive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The World』의 사진기자였던 샘 은지마가 소웨토 항쟁에서 찍은 사진(<그림 10>)이다. 시위는 평화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늘어가는 참여자들의 수에 경찰은 이를 위협하다고 판단했고, 무장하지 않은 아이들과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다. 그 결과 흑인 174명, 백인 2명이 사망했다.

〈그림 10〉 Sam Nzima
〈Soweto Uprising〉 1976.6.16



은지마가 찍은 이 사진은 당시 총에 맞는 인물을 병원으로 옮기는 긴박한 상황과 인물들의 다급함을 잘 보여준다. 사진 속에는 총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쓰러진 남학생, 그를 안고 뛰는 또 다른 남학생,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곁에서 함께 뛰는 여학생. 쓰러져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안겨 가는 인물은 헥터 피터슨(Hector Peterson)이다. 피터슨은 소웨토 시위에서 경찰이 아이들을 향해 무작위로 쏜 총에 맞아 사망한 13세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피터슨을 안고 뛰는 사람이 바이자 마쿠보(Mbuyisa Makhubo), 옆에서 함께 뛰는 여학생이 바로 피터슨의 누나(Antoinette Peterson)이다. 이 사진은 총에 맞은 헥터 피터슨을 찍은 유일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은지마는 세 사람이 뛰는 장면을 연속해서 5~6장 연속적으로 촬영했고, 〈그림 10〉은 그중 한 장이다. 2016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가는 당시를 회상하며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 발견했고, 13세의 어린 소년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Time』, 2016). 아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정부의 행태와 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사진을 통해 남아프리카

카공화국의 흑인 커뮤니티는 분노했고, 더욱 극심한 반아파트헤이트 정서를 표출했다. 역사적 사건을 담은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이 사진은, 공개된 직후부터 아파트헤이트의 폭력성과 이에 저항하던 지역인들의 모습을 함축하며 소웨토 항쟁의 상징(Gary Baines, 2007, 286)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사진은 신문 『The World』(〈그림 11〉)을 통해 국제 뉴스를 다루는 매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경찰이 신문사로 찾아와 항의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이 사진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미 뉴스에 보도된 사진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간되는 신문들로 퍼져나갔고, 『The Guardian』, 『The Sun』, 『The New York Times』 등에서 은지마의 사진과 함께 소웨토에서 벌어진 비극을 보도했다. 이미지를 접한 미국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행한 총격 사건을 규탄했고, 국제 여론 역시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갔다.

〈그림 11〉 『The World』에 실린 사진



해당 사진이 빠른 속도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터슨을 안고 뛰던 바이자 마쿠보는 경찰에 쫓기게 되어 이 사건 후로 종적을 감추었다. 나이지리아, 캐나다 등에서 마쿠보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실제로 그의 행방을 찾는 다큐멘터리 필름 〈What Happened to Mbuyisa?〉(2018)이 제작되어 가족들의 인터뷰를 신기도 하였다. 사진을 촬영한 은지마 또한 보안 경찰의 위협과 협박에 시달렸다. 사진기자로서의 경력도 선택의 여지 없이 강압으로 포기해야 했고(F. Mamdoo, 2018, 400), 이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19개월 동안 가택 연금을 당했다. 당시에는 경찰, 그리고 경찰의 행위를 사진으로 찍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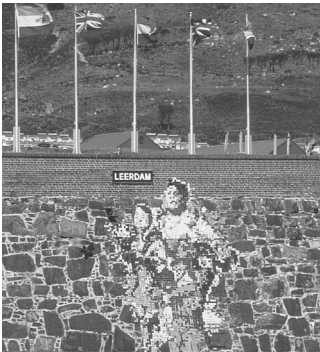
〈그림 12〉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포스터 원본



출처 : SAHA Poster Collection

은지마의 사진은 사진작가이자 사진기자로서 현장을 포착하려고 했던 기록 생산의 1차적 목적을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터슨이 사망한 6월 16일은 남아프리카에서 국립 청소년의 날(National Youth Day)이 되어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는 포스터로, 그리고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의 상징적 대상으로 구현되어 신문과 단행본을 비롯해 포스터, 안내문, 벽보 등 다양한 형태와 형식으로 재생산되었다. 현재에도 이 이미지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차별과 폭력 현장에서도 항의를 대변하는 데 사용되어 청소년에 가해진 폭력 행위를 비판하고 자유의 가치를 새롭게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1976년 6월 16일에 대한 기억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과 사건과 관련한 이미지의 끊임 없는 재생산 과정을 반복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형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사람들의 기억과 구술,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사진 이미지는 소웨토 항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구체화한 결과물로 형성된 것이다. 소웨토 항쟁의 상징은 현대미술 작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는데 케빈 브랜드(Kevin Brand), 에르네스트 피농 에르네스트(Ernest Pignon-Ernest), 요하네스 포켈라(Johannes Phokela) 등이 소웨토 항쟁의 희생자들과 정부의 폭력에 맞서 싸운 이들을 오마주한 작품을 선보이기도 하였다(<그림 13, 14, 15>).

<그림 13> Kevin Brand
<Pieta> 1996



<그림 14> Ernest Pignon-Ernest
<Soweto> 2002



거를 되돌아보는 역사적 자료으로, 현재에서도 무분별한 폭력을 비판하는 창작의 재료로, 그리고 자유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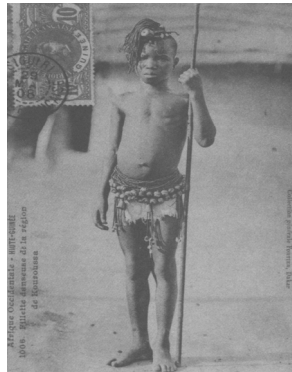
이처럼 은지마의 사진은 다양한 집단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들, 나아가서는 흑인의 정체성을 전승하는데 기여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양한 매개물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은지마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재창조한다. 이처럼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를 후대에 전달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런 행위는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대변(신동희, 2016, 42)한다.

아파트헤이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넘어, 흑인을 향한 무차별한 인종 차별을 만든 전 세계적인 역사적 비극이다. 전시에서 참여한 사진작가들은 이 제도에 얽힌 복합적인 관점을 포착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들의 전실을 오롯이 담으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대해 전시 기획자인 엔위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를 경험한 사람들을 찍은 사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언급했다. 첫 번째는 아파트헤이트 체제를 겪는 동안 폭력과 저항의 역사를 거치며 국가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설명하는 사진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아파트헤이트를 기록하는 매체로 사진이 지닌 담론적인 위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점 (Okwui Enwezor, 2013, 33)이다. 이처럼 전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는 약 40여 년 동안 벌어진 인종 차별의 시간을 다루지만, 그 너머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흑인 배척의 역사를 집약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이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완성한 이 사진들은 수백 년에 걸친 식민지배와 정부 주도로 공식화한 인종 차별의 역사에서 살아낸 투쟁의 삶을 묘사하고 이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기록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4. 대항기억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진기록의 가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흑인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 국가가 후원한 출판물은 흑인을 변화에 소극적인 이들로 소개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흑인들은 오래된 시골과 부족 문화에 영원히 갇혀 있는 존재로 묘사(Dodd Alexandra, 2015, 54)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사실로 증명하기라도 하듯, 19세기에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학문적 실험과 식민지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탐험가들의 보고서(심재중, 2007, 118)는 대중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서양인들은 아프리카인을 대상으로 인체 측정학 사진을 촬영해 각 부족의 독특한 의상과 골상으로 분류해 이를 과학 표본의 사례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착화된 흑인을 향한 서양인들의 확고한 이미지는 대중 매체와 소설, 여행기뿐 아니라 공공박물관과 도서관, 아카이브, 미술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백인을 진보한 사람으로, 흑인을 교육받지 못하고 문명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6> 관광 엽서에 묘사된
아프리카인의 모습



아파트헤이트 제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생산한 사진기록은 흑인을 여전히 부족 의식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시각화했다. 정부에 의해 고정된 사진 이미지는 의도적으로 흑인을 향한 선입견을 형성하도록 부추겼다. 하지만 이 시기에 촬영한 개인의 사진기록은 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한다. 사진작가들이 재조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현실은 다른 인종과 다름이 없는, 보통의 삶의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진기록은 기존의 역사 인식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자, 실제 역사를 증명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전시에서 선보인 사진들은 인간의 역사가 자민족 중심주의, 엘리트주의, 역사의 연속성에 대한 공공연한 믿음을 부추겨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대항기억(이경래·이광석, 2017, 50)의 개념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흑인에 대한 서양인들의 태도와 인식을 보여주는 아파트헤이트는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폐지되었다. 그 이후로 그동안 잊혀졌던 인권 향상 운동이 일어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변화 못지않게 아프리카의 실제 모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포착할 수 있었다. 편협한 역사관을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도 우선하여 출범했다. 1995년에 설립된 위원회는 샤프빌 대학살이 벌어진 1960년부터 만델라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995년 5월까지 자행된 인권침해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인권침해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보상조치 및 미래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장원석, 2017, 122). 물론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비판적 시각과 한계점도 존재했지만, 역사의 복원이라는 측면과 정부에 의해 유린당한 개인들의 인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이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한 활동 이외에 개인과 여러 기관에서도 역사를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과거에 생산된 기록

물을 수집해 새로운 기억을 구축하려는 아카이브들이 대거 설립되었다. 프리덤 파크(Freedom Park)와 디스트릭트 식스 박물관(the District Six Museum), 넬슨 만델라 기억과 대화 센터(the Nelson Mandela Centre of Memory and Dialogue) 등 많은 기관은 흑인과 관련한 기록 수집뿐 아니라 구술사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시도했다. 수많은 기관이 개인과 공동체를 문서와 사진, 영상, 시각예술, 웹사이트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사람의 기억을 연결해 사회적 기록을 형성하고 구축(Anthea Josias, 2011, 97-98)하는 데 앞장섰다. 이처럼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과거사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이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억은 때때로 상호 대립적이거나 인위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속성에 대해 그 사실을 뒷받침하며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기록(임희연, 2008, 250)이 지닌 힘이기 때문이다.

인종 차별의 시기를 거치며, 사진뿐 아니라 흑인들에 대한 불평등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었다. 그중에서도 사진은 다른 기록 매체보다 그 자체로 갖는 특수한 특성, 즉 역사를 보여주는 시각적 매체로서 과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이를 보증하는데 탁월하다. 아파르트헤이트를 경험한 사진작가들은 역사를 기록하려는 의도로, 개인적 차원에서 공적 아카이브에서 보존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역사를 이미지로 생산했다. 이런 점과 연결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를 재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전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에서도 알 수 있듯 당대를 촬영한 사진들이다.

사진작가들, 특히 아프라픽스(Afrapix)가 남긴 사진들은 아파르트헤이트와 극악한 인종 차별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프라픽스는 흑인과 백인, 혼혈, 유대인, 인도인 등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사진작가들이 조직한 사진가 그룹이다. 아프라픽스 구성원들은 주로

고착화된 아프리카 이미지에 반발하는 작업을 선보였는데, 특히 강제 철거와 행진, 집회, 장례식 등을 주제로 삼아, 강제 동원된 흑인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Patricia Hayes, 2007, 146-147)을 다루었다. 이는 1980년대의 가혹한 정권에서의 삶을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흑백 사진 저널리즘(장선희, 2017, 247-248)으로 평가받는다.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에 전시된 작품 중 일부도 아프리카픽스 구성원들이 촬영한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카메라를 체제에 대항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결과물인 사진 기록 역시 저항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사에서 사진작가들은 현실을 증명하고 고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지지를 받았다. 이들의 사진은 『Weekly Mail』을 포함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방송 매체에 제공되었고, 이들의 행위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문화적 투쟁의 초석(Okwui Enwezor, 2013, 372)이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활동한 작가들이 사진의 대상으로 다룬 주제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관통하는 주제는 분명했다. 이들은 자신만의 주체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회적 사건들을 시각언어로 표현하고자 했고, 이를 기록하여 알리고자 했다. 사진작가들은 자신이 갖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이 파괴되는 현실을 드러냈고, 흑인의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는 당대의 사진작가들이 지녔던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촬영한 사진기록은 그동안 언론과 대중 매체뿐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생산한 공식기록을 해체하여 이를 새로운 기억으로 재구성하려는 목적의식을 강하게 지닌 매체이다. 이러한 사진의 특징은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과거의 사건이나 상황을 재현하고, 역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

면, 사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록의 가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시된 사진들이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이미지뿐 아니라 이를 생산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 점이다. 사진 작가들은 사진을 촬영한 일자를 비롯해 장소 정보, 사진을 찍을 당시의 상황 묘사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진을 이미지 그 자체로서가 아닌, 당시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전달하려는 작가들의 의도로도 볼 수 있다. 특정한 시대를 나타내는 사진을 대항기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 차원의 전문적 역사 서술보다 사진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 역사 기록과 해석이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진으로 하나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광수, 2015, 322-323)에서 가능하다. 또한, 사진이 매체로서 지닌 가장 큰 매력은 단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이를 접하는 시각에 따라 수십 가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김상미, 2011, 181)이다. 이는 대항기억으로서 공식적인 역사가 드러내지 않는 여러 상황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항기록으로서 사진기록은 생산자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또, 후대의 연구자들은 이 사진을 통해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당대 분위기와 흐름을 읽어 사회학적 분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어, 사진의 원래 생산목적과는 별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 원형이 가지는 물리적 특성 및 연계성으로 인한 증거가치와 인물과 사물, 사건 등을 기술해 자료의 유용성을 의미하는 정보 가치, 사진이라는 원래의 형태로서 갖는 미적 가치 등의 실물가치(배은경·박주석, 2009, 99),또한 활동·시대·사건·장소 등과 같은 정보를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김성희, 2019, 248). 간혹 생산자를 알 수 없을지라도, 사진기록이 지닌 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사진은 공적 기록에서 망각하거나 소외된 주제를 다루고, 이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특성을 기반으로 그것이 대항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비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생산된 여러 공식 기록은 수많은 개인의 기억과 비교하면 그 주제와 대상에서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상미가 전쟁 관련 사진을 연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2000년 이후 북한과 관련한 공식기록으로서 사진은 사회주의 체제하의 비합리적인 체제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지도층의 약탈, 폭력적 이미지로 그려졌지만, 잡지 『LIFE』는 그동안 망각하였던 사진 자료를 통해 은폐되고 배제된 역사를 입증하면서 이에 대항하는 기록을 조명했다(김상미, 2011, 192).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진기록은 수많은 사적 기록들이 결합되어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독특하다. 이는 원래 탄생하게 된 배경인 예술로서의 사진보다 사람들에게 이미지 정보를 전달하는 성격이 강해졌고, 그에 따라 순간적인 역사적 현장을 전달하는 기록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김성희, 2019, 247)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맥락에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에서 전시된 사진들은 국가에 의해 훼손된 여러 사실과 가치들을 새롭게 생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사진들은 모두 개인의 영역에서 생산한 것으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자명한 사실을 제공한다. 이처럼 시민으로서 사진작가들의 시각을 주체적으로 표현한 매체로 평가할 수 있는 사진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흑인이 추구한 그들의 공동체 정신을 짐작할 수 있는 매체이다. 이는 이경래와 이광석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사회사적 사건에 대한 공적 기록 역할의 공백으로 시민 영역에서 예술가와 활동가들의 예술 행동과 문화실천을 매개

해 사회 기억을 역사 기록으로 남기려는 흐름과도 같은 맥락을 갖는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와 공감대를 가능하게 하는 사진기록은 여러 기억을 결합해 역사의 흔적을 새롭게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공식 기억과 시민들의 기억 사이에서 발견되는 괴리에 주목하면서, 공식기억에 균열을 내며 특정한 지배 기억의 독주를 제어하려는 저항적, 투쟁적, 민주적 의도를 지니고 있음(탁장한, 2020, 173)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출간하자마자 ‘아카이브 재고찰(Refiguring the Archive)’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민주 정부로의 이행기 동안 과거 군부나 비민주 통치 집단의 민간 잔혹 행위에 대한 집단기억의 복원과 재구성을 통해 아카이브의 역사 화해적 역할을 부각했다(이경래, 2015, 7). 선거로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와 흑인의식운동(Black Consciousness Movement)을 조직한 스티브 비코(Steve Biko, 1946~1977), 그리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현실을 위해 투쟁한 수많은 희생은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자각하고 각성하게 했다. 이처럼 사회적 공감대에서 비롯한 구성원들의 협력은 잊히고 버려진 기억을 되살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노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들에게는 피부색으로 핍박받고 폭력을 견뎌야 했던 편파적인 역사를 새로운 이념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기에 더욱 특별한 의의가 있다.

5. 맺음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지역이고, 역사 또한 그렇다. 하지만 조국의 비극을 기록하고, 이를 알리려고 시도한 여러 사례는 우리나라가 겪어온 정서와 비교해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는 거주지에서 강제로 이주당하고, 자신의 능력

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토지 소유와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했던 흑인들의 모습을 처절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은 백인 선민사상을 바탕으로 인종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했던 서구의 시선으로 확장되었고, 박물관과 아카이브, 갤러리, 단행본 등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흑인들은 백인을 이상적인 존재로,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강요받았다. 이처럼 역사에 깊게 각인된 차별과 억압의 역사를 방증하는 아파르트헤이트는 1994년에 완전히 철폐되었지만, 수백 년 동안 지속한 인종 차별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와 흑인 이미지에 형성된 차별과 불평등한 인식은 대중적인 시설과 사회적인 행사 그리고 취업의 기회에 있어서 인종 차별(박가영, 2020, 148)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흑인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흑인들은 인종 갈등으로 야기된 폭력에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고 희생당하는 사태를 반복적으로 목격하면서, 이에 저항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였다.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했고, 사진작가들은 사회적 현상과 폭력의 현장을 사진으로 포착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폭력에 맞서는 장면과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사진으로 담았고, 아프리카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점은 스티브 비코가 1960년대에서 백인과 백인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흑인의식을 고양하기를 주장하고, 흑인이 스스로를 더 이상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주체적으로 행동(장용규, 2000, 32)하고자 한 노력의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전서 『Rise and Fall of Apartheid: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는 폭력에 저항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외된 이들을 보여주고, 아파르트헤이트를 겪은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총망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사진은 아래로부터의 실천 방안으로 논의되는 공동체 아카이브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에 함몰되어 있던

기록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관심을 극대화(윤은하, 2012, 36)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체이다. 또,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형성하는 대항기억의 실천이자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진은 역사를 증명하고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매체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역사적 현실과 집단의 정체성이 갖는 실존과 사회, 문화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시대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Anthea Josias (2011). Toward an Understanding of Archives as a Feature of Collective Memory. *Archival Science*, 11, 95-112.
- Dodd Alexandra (2015). "Live Transmission": Intimate Ancestors in Santu Mofokeng's "Black Photo Album/Look at Me : 1890-1950". *African Arts*, 48(2), 52-63.
- Feizel Mamdoo (2018). The Dynamic of Context, *Cahiers d'Etudes Africaines*, 58, 399-428,
- Gary Baines (2007). The Master Narrative of South Africa's Liberation Struggle: Remembering and Forgetting June 16, 1976,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n Historical Studies*, 40(2), 283-302.
- Okwui Enwezor (2013). Rise and fall of apartheid : photography and the bureaucracy of everyday life.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 Patricia Hayes (2007). Power, Secrecy, Proximity A History of South African Photography. *Kronos : Journal of Cape History*, 33(1), 139-162.
- V. P. Franklin (2003). Patterns of Student Activism at Historically Black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Africa, 1960-1977. *The Journal of African American History*, 88(2), 204-217.
- 김광수 (201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갈등과 화해 그리고 공존을 향한 "평화 개념" 맥락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우분투(Ubuntu)와 진실과화해위원회(TRC)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3, 3-43.
- 김상미 (2011). 전쟁관련 사진전에 나타난 공식기억의 양상과 분단이미지 : 기록과 예술의 매체로서의 사진. *인문과학*, 47, 171-203.

- 김성희 (2019). 근현대 사진기록의 기록학적 가치인식 및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2), 245-261.
- 박가영 (2020).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유산으로서 거주와 언어 불평등 담론. 민주평화연구, 3(1), 145-166.
- 배은경·박주석 (2009). 사진기록의 평가기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 79-102.
- 손은희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정부의 고찰, 1994-2004.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해외지역학 전공.
- 신동희 (2016).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41-59.
- 심재중 (2007). 아프리카와 흑인의 이미지 : 18~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불어문 화권연구』, 17, 107-128.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이경래 (2015).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5-44.
- 이경래·이광석 (2017). 동시대 '대항기억'의 기록화 : 용산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3, 45-77.
- 이광수 (2015). 김기찬의 '골목 안 풍경' 사진을 통해 본 골목 공동체 미시사(微視史)의 가능성과 의미. 역사와 경제, 97, 321-344.
- 이한규 (200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해 과정과 그 의미. 4.3과 역사, 2, 247-278.
- 임희연 (2008).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기록학연구, 17, 247-292.
- 장선희 (2017). Santu Mofokeng's The Black Photo Album—Look at Me : 1890-1950.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46, 247-269.
- 장용규 (2000). 아프리카의 정체성 위기와 흑인의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12, 22-55.
- 장원석 (2017).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론. 정치와 평론, 21, 115-143.
- 정은진 (2018).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의 탈식민주의 전시 담론 : 『도쿠멘타 11』 (2002)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미학미술사학전공.
- 조화성 (1999). 포커스 : 벨슨 만델라의 화해의 삶. 민족연구, 30, 125-130.
- 탁장한 (2020). 추방된 쪽방촌 도시빈민의 대항기억 탐구 : 진보연론보도와 빈민운동기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0(1), 169-219.
- 하상복 (2016). 프란츠 파농과 스티브 비코 : 탈식민 흑인의식의 연대와 확산. 인문사회과학연구, 17(2), 183-213.

〈웹사이트〉

Aryn Baker (2016). This Photo Galvanized the World Against Apartheid. Here's the Story Behind It. 검색일자 : 2022년 9월 1일 <https://time.com/4365138/soweto-anniversary-photograph/>

South African History Online : <https://www.sahistory.org.za> 검색일자 : 2022년 9월 1일

Baileys African History Archive : <https://www.baha.co.za> 검색일자 : 2022년 9월 13일

『Time』 : Soweto Uprising: The Story Behind Sam Nzima's Photograph 검색일자 : 2022년 10월 1일